

39년만의 '지각 장마' 국지성 호우·폭우 많다

광주·전남 내달 4일 시작...저기압 관여로 강수 영역·시점 가변적

다음달 4일을 전후로 광주·전남지역에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전남을 포함한 남부지역의 역대 가장 늦은 장마는 1982년 7월 7일이다. 이번 장마는 39년만에 가장 늦은 장마가 될 전망이다.

29일 기상청에 따르면 "다음달 2일 제주를 시작으로 장마가 시작돼 전라도와 남부 지방에는 4~5일, 7~8일에는 충청도 등 중부지방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상청은 한반도 상공에 철운성처럼 버티고 있는 찬 공기로 인해 정체전선이 북상하지 못했지만 기압계 동향이 바뀌고 있는 중으로, 찬 공기 세력이 약화하고 북태평양고기압의 세력이 커지면서 정체전선이 서서히 북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다음 달 2일을 전후해 남북으로 폭이 좁고 동서로 긴 정체전선이 제주지역에 영향을 주면서 우리나라가 서서히 장마철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기상청은 "이번 장마에 내리는 비는 모두 저기압이 관여하기 때문에 강수 영역과 시점이 매우 가변적"이라며 "전라도 등 남부지방을 제외한 내륙에서의 장마 시작 시기는 변동성이 크다"고 밝혔다.

정체전선은 29일 오후 4시 기준 중국 남부지방에서 일본 오키나와를 지나 일본 500km 남쪽 해상에서 한반도를 향해 북상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장마는 초반부터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전망됐다. 기상청은 "올 봄 중국 남부 지방처럼 저기압이 관여하는 정체전선이 북상한다면 강한 비구름대가 형성돼 소나기나 국지적 호우가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다만 "기상청 초반외에도 지난해와 같이 국지적 폭우가 내릴 지 여부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늦게 시작하는 장마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여부는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기상청은 "정체(장마)전선은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을 받는데, 북태평양고기압이 앞으로도 얼마나 강한 세력을 유지할지는 미지수"라며 "늦게 시작한 장마가 늦게 끝나는 적도 있기에 장마철 종료시기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기상청은 또 장마가 늦게 시작하는 만큼 늦게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늦게 시작하면 끝나는 시기도 늦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통계적으로 늦게 시작해서 일찍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과거 7월에 시작한 남부지방 장마기간은 23일(1982년), 39일(1987년), 28일(2014년) 등으로 장마 시작 시기와 장마기간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광주·전남 등 남부지역에는 6월 25일 시작된 장마가 7월 31일까지, 38일간 이어지며 평년(1991년~2020년) 평균인 31.4일보다 길었다. 또 지난해 장마기간 동안 507.2mm의 비가 내리면서 평년 평균 강수량 338.7mm보다 많은 비가 내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LED 벽화길은 문화예술길

28일 오후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송우초와 광산중 사이 LED벽화길에 설치된 하트 포토존에서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섬진강댐 홍수 조절량 7월말까지 6배 늘린다

영산강홍수통제소가 장마철을 앞두고 섬진강댐 홍수 조절용량을 기존보다 6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29일 영산강홍수통제소와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따르면 7월 말까지 섬진강댐의 수위를 해발 188.2m로 낮춰, 약 1억 9140만 t의 홍수 조절용량을 갖출 계획이다. 홍수 조절용량을 여름철 폭우 등으로 인해 유입되는 강수량을 받을 수 있는 용량을 말한다.

기존 섬진강댐의 홍수조절용량은 해발 196.5m 기준, 3030만 t에 불과했으나 용량을 6.3배 늘렸다.

영산강홍수통제소는 8월부터 섬진강댐의 수위를 해발 194m로 다시 올려 가뭄에 대응한다. 이 또한 기존 홍수기 제한수위인 196.5m보다 낮은 수위로 더 많은 양의 저수량을 확보할 수 있다.

영산강홍수통제소는 섬진강댐 이외에도 홍수기를 대비해 주암댐과 장흥댐 등 영산강과 섬진강 내의 댐의 수위를 기존보다 낮춰 운영한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홍수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홍수대응 능력을 키워는 한편 홍수가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예술관광 떠나요

광주 북구 '맛있는 예술여행센터' 7~10월까지 프로그램 운영

광주 북구의 '맛있는 예술여행센터'가 지역 예술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에 마련된 프로그램은 오는 7월부터 10월까지 운영된다.

먼저 '맛있는 아트피크닉'은 남도향토음식 박물관에서 도시락 만들기 체험 후 광주비엔날레와 중외공원에서 문화예술 투어를 진행한다.

'사진작가와 함께하는 호수생태원 나들이'는 광주호호수생태원을 방문해 인형사진 찍는 법을 배우고, 환벽당 표전 전통공연을 관람하는 등 시가문화를 즐기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7월 3일부터 8월 28일까지 매주 토요일 저녁 비엔날레전시관 광장에서는 북구 미디어퍼사드 문화콘서트와 연계해 다양한 버스킹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체험 프로그램 참가 신청은 광주관광협회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북구청 체육관광과 또는 광주관광협회로 문의하면 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내년 개교 광주예술중 신입생 40명 모집

시교육청, 10월 18~21일

내년 3월 개교하는 광주예술중학교가 신입생을 모집한다.

광주시교육청은 오는 10월 18일부터 같은 달 21일까지 2022학년도 광주예술중학교 신입생 원서를 접수한다.

모집 분야는 음악 20명(피아노·성악·관현악·국악), 미술 20명이다.

지원 자격은 광주 지역 초등학교 졸업예정자나 졸업 학생이다. 또는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이로, 광주에 사는 학생이면 가능하다. 예비소집은 오는 11월 5일이며, 실기 전형은 11월 6일이다. 전형 방법은 실기(70%)·면접(20%)·출결(10%)이며, 합격

자 발표는 11월 10일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과 광주특성화중학교·특성화고등학교의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광주예술중학교를 특성화 중학교로 지정했다. 광주체육중과 평동중학교에 이은 3번째 지정이다.

광주예술중학교는 북구 매곡동 옛 전남교육청 부지에 자리한다.

앞서 학부모·시의원·시교육청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개교심사위원회는 광주예술중이 광주예술고와 통합운영학교로 운영될 예정임을 고려, 학교 명칭의 통일성을 위해 교명을 광주예술중학교로 확정했다. 학급 수는 학년 당 2개 학급씩 총 6개 학급이다. 설치학과는 음악과와 미술과 2개 학과이며, 학생 수는 과당 20명씩이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전남대학교, 개교 70주년 기념 표어 공모

내달 23일까지

전남대학교가 개교 70주년을 앞두고 표어를 공모한다.

전남대는 내년으로 다가오는 개교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오는 7월 23일까지 4주 동안 표어공모에 나선다.

공모 주제는 ▲개교 70주년의 의미와 가치를 핵심적이고 함축적으로 나타내거나 ▲전남대학교의 역사와 미래교육 100년의 비전을 반영할 수 있는 내용 ▲지역사회 및 세계와 소통을 담아야 할 수 있는 내용 ▲기타 전남대학교를 상징할 수 있는 참신한 내용이어야 하고, 20자 이내의 간결하면서도 독창적인 문장으로 표현하면 된다.

응모작은 주제적합성, 작품성, 창의성 등을 감안

한 두 차례의 심사 끝에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이 가려지고, 상금이 주어진다.

응모는 전남대학교 홈페이지(<https://www.jnu.ac.kr/Catchphrase70>)를 통해 가능하며, 표어(국·영문 모두 가능)와 그에 대한 부가설명을 A4용지 1매 이내로 기술해 접수하면 된다. 1인당 응모는 1점으로 제한된다.

앞서 지난 2012년 개교 60주년에는 '60년의 두드림, 세계와의 어울림, 미래로의 큰 울림'이 당선됐다.

전남대 관계자는 "주요한 단어로 진리와 정의의 빛, 당당하고 자유로운 전남대인, 자긍심과 품격, 학술·봉사·문화적 역량, 지역·시민·동문을 향한 개방과 소통, 세계적 비전 등을 참고하면 더 좋은 작품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창립 40주년 고객 감사 이벤트

대상
300만원 상당(1명)
금 10돈

1등
100만원 상당(1명)
건조기

2등
50만원 상당(2명)
청소기

3등
30만원 상당(3명)
쿠쿠밥솥

4등
10만원 상당(10명)
에어프라이어

5등
5만원 상당(20명)
온누리상품권

※본 경품은 이미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제세공과금은 본인부담이며 상기 조건은 추첨일까지 유지자에 한합니다.

경품행사기간 : 6월 21일 ~ 10월 31일

#경품추첨일 2021년 11월 10일 #경품추첨장소 대광금고 본점 3층 회의실

#경품응모권 지급 조건 ①저동이체 신규 및 변경(최소 5건 이상) ②출자금 신규 및 추가(최소 30만원)

#가입기본선들 고급 통장케이스 증정

MG대광새마을금고 본점(계림오거리) 062)222-5851
 서남지점(문화전당역) 062)227-1532 지산지점(법원정문 앞) 062)222-1431